

# 순천 쓰레기 문제, 시민 합의로 해결한다



28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찾기 시민 100인 토론회'에서 허석 순천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광주일보 8일자 13면)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의 해법을 모색하는 100인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순천시는 앞으로 광장 토론과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시민 합의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인 토론회를 열어 거듭된 적자 운영으로 가동 중단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재가동 방안 등 해법 찾기에 나섰다.

순천시 1일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10t으로 자원순환센터가 가동 중단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왕지동 매립장으로 유입되면서 앞으로 1~2년이면 용량 초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순천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현실을 공유하고 장기적 대안 마련과 쓰레기 분리수거 실천운동 등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쓰레기 문제 해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식 순천시 자원순환과장, 장용철 충남대 교수, 이태홍 서울 금천구 독산3동 동장이 발제자로 나서 순천시 자원순환정책과 현실, 국내외 흐름과 사례 등을 발표했다.

순천시는 이날 100인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과 앞으로 광장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가칭)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시의회도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관련 부서로부터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을 보고 받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쓰레기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안수 행정자치위원장은 "의원들이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하는 등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감사와 시민 사회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광장 토론회 등 다양한 논의 구조를 통해 쓰레기 정책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나아가 자원순환 정책의 장기적 방향 결정을 위한 '(가칭)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 여파 100인 토론회 열고 해법 모색 시, 공론화위원회 구성키로 시의회도 문제 해결 적극 나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광주일보 8일자 13면)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의 해법을 모색하는 100인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순천시는 앞으로 광장 토론과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시민 합의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광주일보 8일자 13면)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의 해법을 모색하는 100인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순천시는 앞으로 광장 토론과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시민 합의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 전남 동부권 시·군 의장단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정부·국회에 건의안 전달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 의장단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8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구례·곡성·보성·고흥 등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 의장단은 최근 회의를 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9월 정례회에서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의장단은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의장단은 동부권을 넘어 전남 22개 시군의 의회까지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부권 7개 시군의 의회가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 쓰레기 정책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나아가 자원순환 정책의 장기적 방향 결정을 위한 '(가칭)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회'도 27일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수많은 민간인과 군경이 숨졌지만,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간주해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순사건의 발발요인인 제주 4·3사건의 경우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2014년부터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출범한 진실과 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피해조사를 해 민간인 학살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여순사건 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60년 전통 '하늘아래 첫 쌀 순천햅쌀' 판매 개시

순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확에 들어간 '하늘아래 첫 쌀 순천햅쌀' 판매를 시작했다. 28일 밝혔다.

60년 전통의 전국 최고 햅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순천햅쌀은 지난 3월 12일 해동면 일대 조기재배단지 127ha에 모내기한 조생종 품종(고시히가리)이다. 순천햅쌀은 추석명절 제수용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특히 밥맛이 좋아 대도시

소비자로부터 추석 선물로 인기가 높지만, 생산수량이 많지 않아 조기 판매 완료가 예상된다.

순천햅쌀은 선물용세트 상품 5kg단위 1포장 1만8000원이며, 택배용은 2만 1000원에 순천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판매된다. 구입 문의는 순천농협 061-724-5666.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임시 폐관' 배병우 스튜디오 활용 방안 모색

순천시 내일 2차 토론회

순천시는 지난 2월 임시 폐관한 '배병우 스튜디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0일 오후 순천시 영동 생활문화센터에서 순천장작예술촌 제1호 활용방안 2차 토론회를 열고 28일 밝혔다.

순천시는 2016년 도시 재생을 위해 유명 사진작가인 배병우씨의 창작 스튜디오를 열었으나 지난 2월 배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불거져 임시 폐관했다.

폐관 이후 장작예술촌 제1호로 이름을 바꿔 지역 예술인들의 사진, 회화, 미디어 아트 전시를 열었다.

최근에는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가 진행하는 한·중 청년작가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미디어아트 전시장 활용방안과 골목길과 연계한 소풍 공간 구성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순천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진 스튜디오로 지어진 공간이다 보니 회화 작품 전시보다는 대형 설치작품이나 미디어아트 전시에 적합할 수 있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공간의 성격이나 방향이 정해지면 스튜디오 이름도 다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내일 2차 토론회

# CCTV통합관제센터 예방 활동 돋보이네

실종된 치매노인 찾아주고 하천 범람 사전 발견 대비

CCTV통합관제센터가 길을 잃은 치매노인을 찾고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을 사전에 발견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112상황실에서 조곡동 역전시장 인근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A(82)씨가 실종됐다는 무전을 받았다.

관제센터에서는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주변에 설치된 CCTV부터 확인에 들어갔다.

순천시내 일대로 관제 범위를 확대한 관제센터는 오후 5시30분께 상사면 마륜리 4거리에서 배회 중인 A씨를 발견하고 112상황실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집중 호우가 내린 26일 오전 8시50분에는 주암면 용촌천이 폭우로 넘치는 것을 발견하고 재난종합상황실로 통보했다. 순천시는 용촌천에 공무원을 보내 35가구 주민 50여명을 인근 중학교에 긴급 대피시키고 양수기 등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였다.

순천시 CCTV관제센터에는 관제요원 33명과 경찰관 3명이 교대로 1천500여개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실종된 치매노인 찾아주고 하천 범람 사전 발견 대비

# 세월극 "법질서 확립하고 청렴 공직문화 정착"

최국진 순천교도소장

"지역사회와 함께 열린 교정을 실현해 행복한 순천교도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국진(48) 신임 순천교도소장은 28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직원들이 화목하고 명량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게 일할 맛 나는 일터,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출생인 최소장은 2002년 행정고시 45회 교정관으로 임용돼 서울구치소 사회복귀과장,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해남교도소장, 광주지방법정형 보안과장 등을 역임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풍수지리사 자격시험 대비반 모집

이 시대 최고의 풍수사 인산 윤갑원 선생님의 실전 비법 강의

모집인원 | 00명  
 모집기간 | 2018. 8. 14~  
 모집대상 |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는 분  
 자격종류 | 통맥풍수지리사(1급, 2급, 3급), 양택풍수사(단일급), 주거환경개선사(단일급)  
 강의내용 | 음택풍수 강의 : 묘터 보는 비법 (윤갑원 교수)  
 양택풍수 강의 : 집터 보는 법, 이사집 정하기 등 (정태일 교수)  
 강의방법 | 이론강의 : 매주 월요일 19:00~21:00 본학회  
 현장실습 : 매주 토요일 음·양택 현장실습  
 공개강좌 | 2018. 9. 3 본 학회 강의실  
 학회위치 | 광주 북구 서방로 37, 2층(중흥동 270-15)  
 연락처 | 062)511-2488, 010-3640-8277(김용국 학회장)

※본학회는 광주전남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기본법 제17조2항에 의한 풍수사자격증 발행기관임

사단법인 정통풍수지리 연구학회

##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